

여호와 하나님이 호세아 7장에서 북이스라엘의 타락 중심에 거짓(속임)이라는 죄가 있다고 지적하십니다. (1절) 특별히 호세아 시대 북이스라엘의 거짓의 죄는 다른 사람, 자기 자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거짓은 정치적으로 연속적인 반역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3~7절)
그들은 마치 반죽을 발효할 때를 제외하고는 늘 달구어 놓은 화덕과 같이(4절)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 거짓 아침을 하며 충성을 맹세합니다. (3, 5절) 그러나 금세 불꽃처럼 반역의 마음이 일어나 음모를 꾸미고, 왕들을 죽이는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6, 7절)
-> 실제 북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 30년 동안 6명의 왕이 세워집니다. 북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로 보아도 210년의 짧은 역사 속에 무려 19명의 왕이 통치합니다. 그리고 7명은 신하들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왕조만도 9개가 형성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거짓은 자기 자신도 속이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9절)
이방 나라들에 의해 이스라엘이 힘을 잃어버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스스로에게 우리는 역사상 유례없는 부와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스스로를 계속 자만하며 스스로를 속여 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거짓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났습니다. (8~16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비유하십니다. (8절) 겉은 팬찰아 보이지만 뒷면은 새까맣게 타버린 것을 비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심으로 부르짖지 않고(7, 10, 14, 16절) 앗수르와 애굽에게 갈팡질팡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울무가 됩니다. (12절)

하나님은 거짓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모두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첫째, 죄의 정직한 직면이 필요합니다. (1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유하기 위해 죄를 드러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온전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와 직면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지만, 치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야 합니다.

둘째, 진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14, 16절)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와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암송

이번 주 외울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3)

통독

이번 주 성경 통독

7/5(월)	7/6(화)	7/7(수)	7/8(목)	7/9(금)	7/10(토)	7/11(주일)
시 44-50	시 51-57	시 58-65	시 66-69	시 70-74	시 75-78	시 79-86

QT

이번 주 QT 말씀

7/5(월)	7/6(화)	7/7(수)	7/8(목)	7/9(금)	7/10(토)	7/11(주일)
출 34:27-35	출 35:1-19	출 35:20-29	출 35:30-36:7	출 36:8-38	출 37:1-16	출 37:17-29

나눔

목장 나눔 문제

1.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거나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 주세요.
2. 최근에 깨닫게 된 자신의 죄나 잘못에 대해 나누어 주세요.
3.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행했던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나누어 주세요.